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Jimmy Eppley (Broth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7:21-23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Obedient Faith”	Pastor
* Hymn	 44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Obedient Faith

In the concluding sec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Mt. 7:13-27), Jesus challenges His disciples to stay on the narrow path of allegiance to Him (vv. 13-14) and to watch out for those false prophets who would lead them astray (vv.15-20). Now Jesus demands His disciples to distinguish themselves by professing their faith through obedient lifestyle (vv. 21-23). Jesus points out the fallacy of those who would rely on the formality of their confessions--"Lord, Lord"--as a way of gaining favor before Him. Erroneous are also those who would attempt to justify themselves before the Lord by claiming their works of ministry (prophecy, exorcism, miracle-works) in His name (v. 22). Jesus clearly states that the only thing which would truly please Him is obeying the will of the Father (v. 21). Submission was the way of Jesus in His tru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Thus, those who would truly know the Father and the Son in an intimate way must submit themselves to the word, the will, and the way of God. To those who would choose their own presumptuous ways, whether by advocating confession of faith without good deeds or ministry works without trust-relationship which leads to obedient lifestyle, Jesus only had these words of rebuke: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v. 23). In conclusion, the Christian way is the way of faith that truly works. It is the way of obedient faith in God through Christ.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Today, we acknowledge David John Khokhar as our EM pastoral intern.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estimonial Writing Contest (as a part of the Red Sea Strategy Prayer Series events) are required to submit their English testimonies in writing (5 pages) by June 21.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9:30 am (Room 104) - Leadership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12:00 pm (Room 104) - Children's Sunday School Class (led by Cing and Shin Hye)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David John Khokhar)

1:00 pm (Room 104) - “Christian Doctrine” Study (led by Jimmy Eppley)

1:00 pm (2nd floor) - “Christian Character” Study (led by Vung Zam Cing)

1:00 pm (9th floor) - Mongolian Bible Study (led by Amaraa and Dashka))

3:30 pm (Room 104) - Mongolian Korean Study (led by Kaori)

Saturday English Class (Room 606), alternating between 12:30 pm and 6:30 pm (led by Richard Hammett and Jimmy Eppley)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여성풍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임규현 천세종 심진희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장재원 정대는 이진광 고수는 , Vung Zam Cing

선 교 사 강아곰·주한나,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준경강제정, 바켓잔,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민(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 알·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민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민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광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나형 ·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김종알·백순미(타카노동자),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샴, 쟈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롭, 수란존(방글라데시)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현 김다니엘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제25권 제24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5년 6월 14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

■ 행 4:1-12

지난주에 메르스라는 어려움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것들기 시작한 걱정은 공포로 변했고, 그 공포는 삼시간에 전 대한민국에 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분명히 분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은 메르스 질병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공포심일 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야말로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두려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담대해진 베드로와 사도들

오늘 본문 (행. 4:1-3절)까지 보시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과,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와 모든 맴버들, 즉 정치적인 리더들과 종교적인 리더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베드로에게는 매우 살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너무 무서워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토록 담대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시작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모든 생활에 표준이 되는 절대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그런 성경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며, 그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홍해적인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는 주제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놀랍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십시오써 모든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